

원저

《傷寒論》 少陰病 提綱을 利用한 鍼灸學的 定證 및 分經의 運用 方法에 관한 研究

이성수 · 윤종화 · 황민섭 · 이준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n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 Based on the Study of So-Yin-Bing(少陰病) -

Lee Seong-su, Yoon Jong-hwa, Hwang Min-sub and Lee Jun-beom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ollege, Dong 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 Lun ·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so-Yin-Bing(少陰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Results :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 · 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so-yin-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Heart and Kidney meridian..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접수 : 2005년 7월 9일 · 수정 : 2005년 9월 10일 · 채택 : 2005년 9월 10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054-770-2387 H.P. 017-802-2624 E-mail : item0916@chol.com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So-yin-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Heart of meridian · Kidney of meridian.

Key words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summary of Liu-Jing-Bing. So-Yin-Bing

I. 序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各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¹⁻³⁾,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樹立되었다⁴⁻⁵⁾.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基礎的인 成就를 바탕으로,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法을 體系的으로 論述하였다. 특히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⁶⁻⁸⁾.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太醫令인 王叔和가 醫書를 收集하고 整理하여 《脈經·卷七》에서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 의 次例로 轉載하였고⁹⁾, 《千金翼方·卷九·卷十》의 唐本傷寒論⁹⁾, 北宋의 校正醫書局의 校訂後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되었다¹⁰⁾.

한편 宋 以後의 《傷寒論》의 研究는 王叔和의 編輯이 있다고 여겨 加筆 혹은 增補한 部分을 削除, 修訂 및 註釋을 하여 《傷寒論》의 本來의 모습으로 復原하는 것을 目的으로 “錯簡重訂” “舊論守護”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었다¹¹⁻¹²⁾.

《傷寒論》 研究 方面에 있어서, 朱¹³⁾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¹⁴⁾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¹⁵⁾는 “六經提綱과 六

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으며, 山田¹⁶⁾은 “宋 以後의 《傷寒論》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 六經辨證의 鍼灸學的 運用方法을 探索하기 위하여 《傷寒雜病論·序文¹⁷⁾》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病 中에서 少陰病 提綱^{14,18)}이 形成된 淵源 및 少陰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方法을 研究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이라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 (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 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少陰 厥陰 (兩陰交盡, 至絕作朔晦) 으로 多, 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되고, 《素問·至真要大論》 “氣有多少, 異用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에서 ‘三陰三陽說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¹⁹⁾는 “兩部 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絳陰(或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

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¹⁸⁾, 《黃帝內經》과 中古醫籍 가운데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脉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現在·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的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緯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⁰⁾.

《素問》과 《靈樞》에서 言及된 經絡의 ‘三陰三陽’說에 關하여서는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으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의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手足三陰三陽經의 循環理論을 確立하였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를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의 二種類가 있다²⁰⁾.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을 六經傳變으로 論述한 《素問·熱論》과 外感熱病을 三陰三陽의 概念으로 傳變, 診斷 및 治療를 體系를 갖춘 著作인 《傷寒論》에 關하여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다, 南京²¹⁾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고 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살펴보면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다. 이후

《傷寒論》에서 그 理論 및 臨床應用에 飛躍적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¹⁸⁾.

2. 少陰病²²⁻²³⁾

1) 少陰經의 生理

少陰은 心腎의 水火之氣로서 身志之內臟을 主宰하고, 三陰의 裏를 行하여 統運氣血 生化陰精 및 生殖을 主宰하는 作用이 있으므로 《素問·陰陽類論》 “裡, 雌”에 比喩하였다.

《素問·六味旨大論》에서 少陰의 上에는 熱氣를 治하고 中에는 太陽이 見하고 少陰은 標가 되고 熱이 本氣가 된다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言及한 表本 中氣從化의 觀點에서 보면 少陰의 中氣는 太陽寒水이고 太陽의 中氣는 少陰君火이며 同于本則異于標, 同于標則異于本하므로 本 또는 標를 따른다.

少陰經에는 水火가 竝統하며 君火로 命名한 것은 水中의 陽은 上升하여 火가 되므로 陰陽水火의 升降原理로서 心腎兩臟의 經脈은 溝通渠道가 되고 氣血의 上下運行을 通하여 心腎相交의 水火相濟가 完成된다.

少陰之氣는 心腎의 機能活動을 概括한 것으로 先天의 陰陽之氣를 強調한 것으로 腎은 水臟으로 腎陽의 溫煦作用으로 全身의 水液代謝를 主管하고, 心은 血脈 藏神과 脈氣의 運行을 主管하며, 이러한 心의 機能으로 精神은 血脈의 滋養을 받고 維持 發揮하게 된다.

한편 少陰은 一陰의 初生段階로 手少陰心은 血脈의 外達을 主管하고, 足少陰腎은 津液을 運行하여 모든 經脈이 開通하게 하며, 少陰은 心腎水火가 互濟하는데 中樞的인 役割을 하므로 “樞”라 한다.

2) 少陰經의 病理

少陰은 標本之氣가 다르기 때문에 從本 혹은 從標하여 寒化 熱化의 두 가지 類型이 있으며, 寒으로 氣化하면 四肢厥冷, 惡寒, 神疲欲寐 踰臥 下利清谷 小便清長 등의 證候, 熱로 氣化하면 心煩不眠 口乾 舌燥 咽喉疼痛 小便發黃 등의 證候가 보이며, 少陰之氣가 損傷되면 脈力不繼 혹은 脉結不通하게 되므로 《靈樞·根結》 “樞折則脉有所結而不通” 하였다.

手足少陰經의 病候는 心腎不交 水火未濟에서 비

뒤틀리며, 手少陰心經은 火가 旺盛하여 위로 逆行하거나 火가 陰液을 消耗시켜 心脉이 失常되면 心痛, 噎乾, 渴而欲飲, 目黃 등의 證候가 있게 되고, 足少陰腎經은 陰虛로 相火內動하여 本經 經氣가 厥逆한 結果로 腎氣가 衰微해지고 水가 火를 制約하지 못해 虛火가 上浮하여 肝 肺 心에 影響을 미치고, 또 腎氣虛하여 封藏 固攝作用이 喪失되고 開合作用이 失調되면 前後二陰의 排泄機能障礙, 神疲嗜臥 및 經脈循行部位에 異狀이 오게 된다.

3. 少陰病 提綱의 淵源

《傷寒論》의 제1조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 는 少陰病의 提綱으로서 《注解傷寒論·辯陽明脉證并治法上第五²⁵⁾》에서 提出된 것은 아니며, 《尙論·少陰經證治大意·少陰經后篇²⁷⁾》에서 熱邪가 少陰으로 傳變하는 少陰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少陰脉證²⁸⁾》에서 少陰의 提綱으로 提案하였고, 《醫宗金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辨少陰病脈證并治全篇²⁹⁾》에서 少陰病의 脈·證을 包括하는 少陰病의 概括로서 此條의 位置를 格上시켰고, 陳³⁰⁾는 “此條는 脉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少陰經氣陽脈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설명하고 少陰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傷寒來蘇集·傷寒論注·太陽脉證²⁸⁾》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脉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였고, 《傷寒貫珠集·太陽正治法·太陽病脉證三條³¹⁾》에서 “…… 故柯氏目爲六經之綱領, 而此則爲太陽之綱領也. ……; 學者當參合他條,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論綱目·總論³²⁾》에서 六經의 提綱을 <六經主症> 篇을 構成하여 總論에 偏在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²⁸⁾》 “六經病의 提綱은 六經의 發病이며 傷寒의 六經이 아니고 …… 六經病의 提綱은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 하였고, 《傷寒約編·少陰證提綱³³⁾》에서 “少陰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少陰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다.

4. 少陰病 提綱의 研究

(原文) 少陰① 之爲病, 脈微細 但欲寐② 也. (281)

(解釋) 少陰에 病이 들면 脈象은 微細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

(註解) ① 少陰: 姜⁸⁾은 “人體의 津液 精氣 營血은 모두 陰에 속하며, 精氣와 有關한 臟腑는 心腎이며 少陰에 屬하고 陰中の 少陰으로 ‘少陰’ 이라 한다.” 하였고, 吳²⁹⁾는 “少陰腎經은 水火의 臟으로 邪가 經에 侵襲하면 病人의 虛實에 따라 寒化 혹은 熱化한다.” 하였고, 柯²⁸⁾는 “少陰一經은 水火의 二氣가 兼하여 있어 寒症은 太陰과 類似하고 熱症은 太陽과 類似하다.” 하였고, 楊^{8,22)}은 “少陰은 手少陰心經과 足少陰腎經의 機能을 包含하며 心과 腎으로 代表된다.” 하였고, 黃³⁴⁾은 “《傷寒論》에서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齡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다.

陸³⁰⁾은 “少陰은 先天陰陽水火의 精으로 萬物을 資始하며 主樞, 太陽의 神機와 合하여 全身을 遊行하고, 腹과 胸에 位置하며 …… 齒 舌 須 精髓 脈 骨節 神氣, 二陰을 主管하고 …… 太陽과는 標本으로, 少陽과는 君相火로, 太陰과는 天水一炁로, 厥陰과는 乙癸同源으로 相合하여 少陰의 經氣는 諸經과 相通한다.” 하였고, 姜⁸⁾은 “少陰은 手少陰心과 足少陰腎을 包括하며, 手少陰心은 屬火 主藏神 主血脈하여 一身을 主管하고, 足少陰腎은 屬水 主藏精 主水液하여 先天의 本으로 少陰病은 心腎虛衰하여 水火不交가 主要病理이며 陽虛化寒의 虛寒證에 重點이 있다.” 하였다.

② 脈微細: 楊³⁵⁾은 “沈診法은 重手하여 筋骨部位에서 按診하며 裏證의 虛實을 察候한다.” 하였고, 《傷寒論·傷寒例第三》 “尺寸俱沈者 少陰受病也.” 하였고, 成²⁵⁾은 “邪氣가 裏部의 深處로 傳變되면 脈微細한다.” 하였고, 張³⁶⁾은 “少陰은 先天生氣를 主管하고 經脈의 根源으로 氣가 邪의 損傷을 받으면 脈微細한다.” 하였고, 吳²⁹⁾는 “少陰에 邪가 侵襲하면 陽氣가 微하여 脈象이 沈細하다.” 하였고, 張³⁷⁾은 “少陰經에 熱邪가 傳變되면 初期에는 비록 脈象이 浮大하여도 五六日 後에는 沈細로 變하며 熱症에는 沈細數하고, 寒症에는 脈沈微細하다.” 하였고, 程²⁹⁾은 “陰脈은 모두 沈하고 太陽病의 脈浮를 言及할 필요가 없고, 微는 陽明病의 脈大의 反對이고, 細는 少陽

病의 弦의 反對이며, 沈에 微細를 兼하면 陰證이 確定된다.” 하였다.

南京²¹⁾은 “心腎의 陽氣가 虛衰하여 血液의 運行 鼓動이 無力하여 脈微無力하고 陽氣虛하면 陰血 역시 弱하여 脈道가 不充하여 脈形이 細小하다.” 하였고, 姜⁸⁾은 “脈微는 陽氣가 虛하여 鼓動乏力하고 脈細는 陰血이 虛하여 血虧로 脈에 無充盈한 것으로 脈微細는 陰陽이 俱虛한 것이다.” 하였고, 楊³⁵⁾은 “沈脈을 按診하는 要綱은 陰陽寒熱을 決定하여 陽盛陰微 陰盛陽微를 區分하여 宜守不宜攻 宜補不宜瀉에 있다.” 하였다.

③ 但欲寐: 成²⁵⁾은 “衛氣가 陽分으로 運行하면 잠에서 깨어나고(寤) 衛氣가 陰分으로 運行하면 잠을 자며(寐). 邪가 少陰으로 傳變되어 衛氣가 陰分으로 運行하고 陽分으로 循行하지 않으면 ‘但欲寐’ 한다.” 하였고, 龐²⁶⁾은 “《靈樞·經脈》 ‘是主腎所生病’ 에 嗜臥는 但欲寐이며 邪가 少陰에 있어 衛氣가 陽分을 循行하지 않으면 但欲寐한다” 하였고, 柯²⁸⁾는 “衛氣가 陽分으로 運行하면 寤하고 陰分을 運行하면 寐하며, 少陰病은 陽分으로 많이 운행하는 것이며, 但欲寐는 病人의 意中이며 실제로 잠자는 것은 아니다.” 하였고, 南京²¹⁾은 “精神이 衰微하여 모호한 상태이며 잠자는 것은 아니며 《素問·生氣通天論》 “陽氣者 精則養神” 하는 陽氣가 衰微하여 神氣를 失養하여 欲寐情況을 보인다.” 하였고, 姜⁸⁾은 “但欲寐는 心虛하여 神志가 昏憤하며, 腎虛하고 精不足하여 體力이 疲憊한 心腎俱虛의 狀態를 反映한다.” 하였다.

《傷寒論》 六經病 提綱 중에서 제1조 太陽病 提綱의 “脈浮 斗項強痛而惡寒” 과 제281조의 少陰病 提綱의 “脈微細, 但欲寐” 에서 脈象을 言及하였고³⁸⁾, 五經病 提綱은 邪氣가 盛한 實證을 提綱으로 하였고, 少陰病 提綱은 正氣가 虛한 虛證을 提綱으로 하였고, 脈微細의 脈微는 陽氣가 虛하여 鼓動乏力하고 脈細는 陰血이 虛하여 血虧로 脈에 無充盈한 것으로 陰陽이 俱虛한 것이고, 但欲寐는 心虛하여 精神이 萎縮되고 疲困하며, 腎虛하고 精不足하여 體力이 疲憊하여 나타나는 心腎俱虛의 狀態를 反映으로 此條는 心腎의 病理變化를 나타내는 少陰病의 提綱이 된다⁸⁾.

그리고 少陰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包含하는 모든 疾病의 少陰經으로 罹患되는 症狀의 分經 및 定證하는 綱領이 된다.

III.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的 帛書, 漢簡 및 漢牘 중에서 先秦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十二經脈脈診 및 灸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¹⁹⁾, 《靈樞·經脈》에서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經脈病候 및 人迎·寸口 脈診을 運用하였고, 《難經》에서 手太陰의 太淵穴 附近에서 五臟六腑를 診斷하는 六部定位脈診의 寸口 脈診法에 依한 五輸穴을 運用하는 方法論을 提示하고 있다.

戰國 後期の 《五十二病方》에는 傷寒方面的 處方이 없고,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外感 傷寒의 處方에 對한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¹²⁾, 東漢 末의 著名한 醫家 張仲景은 古代 여러 醫論과 다양한 經方을 參考하고 臨床 經驗이 結合되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 熱病의 專門的인 論述, 《難經·五十八難》의 ‘廣義 傷寒’說, 脈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과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³⁹⁻⁴⁰⁾.

그리고 唐⁴¹⁾은 “《漢書藝文誌》와 《鍼灸甲乙經》에 根據하여 보면 仲景의 書는 《內經》에 本을 두고 있으며, 伊尹, 扁鵲, 倉公의 湯液法을 繼承하였고 …… 醫門의 仲景은 儒門의 孔子와 같은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傷寒論에 關한 研究에 있어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日本의 山田¹⁶⁾은 “戰國 後期の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十一脈灸經》과 《五十二病方》을 보면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은 각각 獨立的으로 發展하였고 …… 解剖學의 發達, 循環器와 內臟 및 經絡과 臟腑의 連繫는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의 兼用할 수 있는 理論의 基礎的인

道路가 創立되었고 …… 《傷寒論》은 經脈學說에서 發展된 脈診法을 藥物療法에 導入하여 體系化하였다.” 하여 《傷寒論》이 經脈學說과의 理論的 連貫性이 있음을 論述하였고, 金²³⁾은 “《傷寒論》의 六經病은 三陽症과 三陰症을 概括한 것으로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手足同名經의 病候를 精簡, 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構成과 《內經》의 構成體系에는 첫째, 太陽病中에 手太陰經과 肺臟病證이 包含되어 있고, 둘째, 太陰病에서는 足太陰經과 脾臟病症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差異점이 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病과 《內經》의 經絡體系와의 連貫성과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論者は 六經病의 脈과 證의 關係에 對한 考察은 經脈病候와 寸口脈을 相互補充하는 鍼灸療法의 研究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傷寒雜病論·序文》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 가운데 少陰病 提綱이 形成된 淵源과 意義 및 少陰病 提綱의 鍼灸學의 定證 및 分經의 運用 方法을 研究하였다.

宋, 明 및 清代 《傷寒論》의 注釋家들은 제281조의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의 心腎의 水火未濟 및 陰陽俱虛의 生理·病理的인 面에서 註釋하고 있으며, 姜⁸⁾은 “脈微는 陽氣가 虛하여 鼓動乏力하고 脈細는 陰血이 虛하여 血虧로 脈에 無充盈한 것으로 脈微細는 陰陽이 俱虛이며, 但欲寐는 心虛하여 神志가 昏憤하며, 腎虛하고 精不足하여 體力이 疲憊한 心腎俱虛의 狀態를 反映한다” 하였고, 西³³⁾는 “此條를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少陰病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 및 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單⁴²⁾은 “《傷寒論》은 臟腑 經絡 및 氣化學說이 融合되어 辨證論治의 體系가 貫通되어 있다.” 하였고, 楊^{22,24)}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는 手·足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 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였고, 吳⁴³⁾는 “用藥은 《傷寒論》의 六經分証으로 治病하고, 用鍼은 《奇經八脈》의 八脈交會八法으로 治病한다.” 하였고, 또 “鍼灸와 藥物의 治病의 原理는 一致하며, …… 用藥은 三因(外因 內因 不內外因)을 區分하여 治療하고, 用鍼은 三因의 區別없이 何經의 寒熱虛實을 살피 施術을 한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論》의 鍼灸學에서의 運用 方法은 三陰三陽의 經絡辨證과 《傷寒論》의 研究方法 中에서 辨證論治派¹²⁾의 “分經論證”의 條門에 따른 針灸處方을 構成하는 方法과 “以方類證”의 方劑의 運用 方法에 따라 鍼灸處方을 構成하는 方向으로 追究되고 있다.

高⁴⁴⁾는 《傷寒論》의 “以方類證”으로 六經病의 各 處方의 方解와 旁通하는 穴位을 選擇하는 針灸處方을 提示하였고, 單⁴²⁾은 《傷寒論》의 “分經論證”으로 六經病의 各 條文에 鍼灸處方을 構成하였다. 또 少陰病의 鍼灸治療의 穴位는 任脈의 要穴과 手·足少陰經의 五輸穴 原穴 絡穴 및 八脈交會八穴을 中心으로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取穴”의 辨證論治의 觀點에서 隨證取穴하는 鍼灸治療을 한다.” 하였다.

그러나 19 C 末葉의 李⁴⁵⁾는 “《傷寒論》을 爲主로 金元四大家 및 明代의 醫家들의 醫論을 窮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른 生理 病理 診斷 및 治方의 理致를 論述한 著述인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太陽病·少陰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의 名目이며,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은 人物의 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하였고, 《傷寒論》의 六經病 中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하여 歷代 《傷寒論》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에서 사람(四象人)中心의 八種類의 臟腑病理論을 中心으로 하는 症狀分類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向後 鍼灸療法의 研究方向도 《傷寒論》의 六經分証에 따른 症狀中心의 針灸治療 혹은 方劑에 따른 針灸處方의 構成하는 方法에서 사람(四象人)의 臟腑性理에 差異에 따른 鍼灸療法의 研究로 方向轉換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傷寒論》의 六經病 中 少陰病 提綱의 形成된 淵源 및 鍼灸學의 分經 및 定證의 運用 方法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繼承하여 發展되었다.
2. 少陰病 提綱은 心腎의 水火未濟 및 陰陽俱虛의 生理·病理的인 面에서 解釋할 수 있다.
3. 少陰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으로 因해 少陰經으로 罹患, 症狀 分類의 鍼灸學的 分經·定證의 綱領으로 運用할 수 있다.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 181-200.
2.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2) : 139-79.
3. 서용원, 윤종화. ·김갑성 :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脉法》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1 : 210-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종화 :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 과 “是主某所生病”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종화 :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관한 研究. 2002 ; 9(1) : 210-1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46-50.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21-3. 210-1. 340-45.
9. 福州市人民醫院. 脉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44-485.
10. 錢超塵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學出版社. 1994 : 1-332.
11.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9 : 2-4.
12.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1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전. 1998 : 54.
14. 陳明·劉燕貨·張保障 撰次整理 :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 17-22. 212-7.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69. 162-3.
16.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 178.
17. 葉橘泉 收藏 :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
18. 李心機.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9 : 40-1. 51-2. 69-76.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12. 321-652.
2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5 : 6-9. 48-51.
21.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2. 70-1.
22.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 95-9. 203-6.
23.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관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 101-6. 117.
24.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204. 224.
25. 成無己. 注解傷寒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6 : 154.
26. 龐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 大星出版社. 1995 : 775-7.
27.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尚論. 北京 :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 83.
28.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69-70. 120-1. 159-62. 181-6. 194.
29.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217-8.
30. 陳恭薄.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313. 323.
31.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2-3. 82-3.
32.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14-9.
33. 徐大椿. 徐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807. 898.

34.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 · 傷寒說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539-41.
35. 楊璿. 傷寒瘟疫條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 7-8.
36.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 傷寒論宗印.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60.
37. 張 璠. 張璠醫學全書 · 傷寒續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593.
38.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 傷寒論宗印.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860.
39. 班 固 著. 李世烈 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21.
40.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4 : 114. 116-25.
41.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 · 傷寒論淺注補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183.
42. 單玉堂. 傷寒論針灸配穴選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22-6. 36.
43. 施士生 校釋. 吳 崑 著. 鍼方六集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 271-316
44. 高峰 高立山. 鍼灸心傳. 北京 :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 114-70.
45.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 誠理會出版社. 1967 : 117-22.